

큰 스님 수행한담

지금 내 생각 비추세요



○3월 10일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에 추대된 원로회의에 참석한 정영스님(오른쪽 끝).

생사를 말하면 부모님의 생사도 건질 수 있는 진짜 효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집을 나왔습니다.

초보이되어 지리산 덕산 골짜기에서 한 노인을 만나니 천왕사에 도둑은 분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갔더니 격암스님이 계셨고, 편지한장을 써주셔서 그것을 들고 해인사로 입산했어요.

1942년 해인사에 가보니 환희심이 납니다.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보니 신심이 절로 나오.

일부에서는 이것을 두고 불교가 허무주의 아니냐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자신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생을 자기안에 갇혀사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공(空)의 도리를 체득하여 참생명의 실상을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응무소주 응단기심'처럼 응당 상(相)에 머물지 말고 그 본신의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선은 업을 녹이는 작업입니다. 의식적

“참선하기 어렵다 지레 포기마세요. 5분 10분 집중력 늘리다보면 매사 최선다하는 삶 살게돼요”

도 쓸모없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을 하다보면 깨울라 질 수가 없습니다. 집중력이 강화되어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돼 있지요.

교학은 부처님 말씀이요. 참선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참선을 통해 부처님 마음과 똑같아지면 하는 일마다 다 보살행이 될 수밖에 없지요. 부처님 명호만 부르면 무조건 열반이지 않지만 열반은 부처님을 간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한 생각도 놓치지않고 일념으로 하면 그게 열반선이지요. 참선을 하고 열반선을 하는 동안 화광반조하게 되고 정혜를 균등하게 하면 이세상은 불국토가 됩니다.

1954년 이승만대통령의 정화담화이후 선방에서 나와 정화운동에 참여했지요. 정화후 조계종총무원 교무부장 재무부장을 역임하면서 도 선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되기위해서는 무문관의 혹독한 수행도 필요하지요. 하천의 바닥을 깨끗하게 보기위해서는 흐르는 물을 막아 흙탕물을 가라앉혀야지요.

수행을 위해서는 성성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삶에 빠져버리고 생각이 없으면 죽음이 빠져버려요. 생(生)이나 사(死)에도 빠지지않는 생사의 자재로움을 갖기위해서는 중도실상(中道實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견성한다는 것은 중도실상을 명백하게 보고 생사자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또 무념무상 공 중도 인연 분성 자비가 다같은 말로, 한 생각이 삼매에 들어 견성하면 모든것이 한순간에 다 알아차려지고 우주의 근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보면 아주 어렵고 불쌍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복지분야가 타종교에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안됩니다.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감싸야지요. 봉사 봉사 나름대로 자기입장에서 자기비행을 실천하다보면 중국에는 깨달음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회의 혼란은 경제가 성장하고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부모형제도 몰라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패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환경학자들도 얘기합니다만 고기를 먹기위해서는 그만큼의 목초지와 곡물이 필요하다는. 목초지만 가지고도 세계의 식량사정은 해결됩니다.

오계의 첫째목욕이 불살생이지요. 자비 중자를 끊는 육식습관을 줄이는 것을 생활화하십시오. 살생을 하지않으면 세상이 평화롭지요. 그렇게되면 업도 줄어들고 건강해지고 그만큼의 기계이익으로 북한 동포들에게 양장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보시행이지요.

부처님께서도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하기도 하는등 수많은 세월동안 선업을 쌓지않았습니까. 아무리 자비행을 하려 해도 업장이 두터워서 못하고 자꾸만 업장만 짓는 분들이 많아요. 참선을 해서 삼매에 이르면 업이 자연히 소멸되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자비행을 실천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깨달아 남마다 수행정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솥 쌓아 업 녹이면 좋은인연 저절로 얻어 부처님 마음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요

2월에 백련암 포산스님 문하에 들어갔는데 도를 닦아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었어요. 행차시절 은사스님 시봉하면서 공양간에서 공양을 지으며 틈나면 '여몽 환포영(如夢幻泡影)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을 화두삼아 참선을 하니 은사스님이 '너는 선방에 들어가라'고 이례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2개월만인 행자가 선방인 퇴실당에서 참선만 했습니다. 당시로는 과격적인 일이고 참선수행만 하도록 허락해준 은사스님께 지금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폼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如夢幻泡影)'는 사구게는 모든것이 잠시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순간만 지나면 모두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고 어떤 실체가 영원히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탐내고 성내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 생각과 행동을 마음거울에 비춰보고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으로 계행을 해도 업을 녹이는 어렵습니다. 빨리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참선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 마음을 알게 되면 너와 내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 업을 짓고 녹이고 할 필요가 없지요.

요즘사람들이 참선 열불선 위빠짜나 명상 등 수행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서로 자신이 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알고보면 모두 같아요. 잡념을 없애고 일념으로 한생각하는 편한 방법대로 하면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지 선은 정(定)혜(慧)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으로 공의 이치를 통달케하는 해를 이루어 항상 흔들림없는 마음을 이루어야지요. 정혜를 벗어내면 모두 사도(邪道)입니다.

참선을 어렵다고 속단하지 말고 처음에는 5분 10분씩 가만히 앉아 마음을 집중해보세요. 아무리 앉아 있어도 마음자리를 놓는 삼매에 들지못하면 아무짝에

성현은 인연소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인연은 미혹보살로 도솔천 내원공에 계시지 않습니까. 미혹보살도 도솔천 내원공에서 용화세계를 장엄하기 위해서 인연중생을 맺어왔습니다. 인연은 공부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인연을 만들어서 성현을 맞이해야지요.

1964년 무문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객스님들의 참선도량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듣고 천축사에 문을 열어 잡고 오로지 참선만 하는 무문관을 열었지요.

부처님의 6년고행을 본받아 6년결제를 했는데 2회차까지 12년간 보문 관음 구암 제선 현구 지효 경산스님 등이 거쳐 갔지요. 무문관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속에서 경계에 부딪혔을때 파도에 휩싸여 공부 어려워지기에 고요하게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견성하기 전에는 고요한 곳 번잡한곳에 대한 분별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체의 분별을 여의고 대자유인

절에 부처님이 여러분 계시는데...

문 사찰에 가면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 있고 명부전 관음전 등 여러 전각이 있습니다. 이 전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 소견으로는 부처님을 일념으로 모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상동·중구 입정동) 삼계가 다 부처님의 나뭇아닌게 없으니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다 라고 말하면 부처님은 거기에 아니 계십니다.

(금강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처를 상호나 이쁨으로 보고 형상으로 숭배한다면 그런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은 없습니다. 일체가 다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대웅전에도 계시고 관음전에도 계시고 도량 어디에나 계십니다.

처사님께서 일념으로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셨는데 부처님은 처사님 마음 속에도 계시고 사무실에도 계십니다. 처사님의 발 걸 닿는 곳, 눈 길

이 되지 않음은지요.

(윤성호·경기도 고양시)

문 지적하신 말씀을 심본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불교든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죄다 타신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 한가지, 자기 부처를 똑바로 보고 자기부처를 믿고 거기서 물러서지 말아라, 타의에서 구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 자의에서 구하면 그게 다 불교입니다. 왜냐? 불교는 특정한 종교라기보다 영원한 생명의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도리를 떠나서 어떤 불교는 어디있고 기독교는 어디있습니까? 그걸 떠나서도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겁대기입니다. 겁대기, 그까지 겁대기 종교라면 불교면 어떻고 기독교나 가톨릭이면 어떻습니까? 겁대기일 뿐인걸요.

생명의 영원한 도리를 떠나서 어디에 기독교가 있고 예수 하나님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의 참 뜻은 자기 완성

하나님이란 말의 참 뜻은 자기 완성

Advertisement for '지상상담' (Earthly Conversations) featuring a flower illustr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Seoul-based office.

달는 곳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어느 특정한 장소, 특정한 때에만 계시다고 하겠습니까?

처처에 부처님이지만 기령 처사님이 특정한 곳에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거기 밖에는 안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웅전에만 계시다는가 관음전이나 삼성각엔 아니 계시는가 혹은 내 마음 속에만 계시다는가 하는 것은 처처불의 가르침을 편협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밖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아라' 하는 것은 바깥 부처님 부처님 줄 알면 이게 빈 집처럼 되고 그렇게 해서 부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안팎이 들어 안테 안이다 밖이다 경계를 나누니까 제 속의 부처부터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처처불인 줄도 알게 되니까 말입니다.

요즘 불자수가 늘지 않아요

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돌이켜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의 피와 살에는 불교가 배어 있고 우리의 문화재나 전통사상에도 불교 체취가 흠뻑 깃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불자의 수가 제자리 걸음이고 대신 도시나 젊은 층에서 그나마 불교가 2, 3등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불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 활판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이리다간 제 조상, 제 역사까지도 잊어버리는 종족

Advertisement for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Causes and Remedies for Women's Diseases) featuring an image of a woman and a list of symptoms and treatments.

Advertisement for '불교 교리 강좌개강(여름반)' (Buddhist Doctrine Course - Summer Session) including details about the course, instructor,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대한불교조계종 수리산대의왕사 주지 일관 신도일동' (The Korean Buddhist Jogye Order, Sulsan Daeyi Wangsa, Abbot Il-gwan, and Sangha)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the Dongsan Ban-ya-hui.